

산타클로스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신형섭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



1. 들어가는 말: 대림절과 성탄절, 핵심적인 신앙성 장의 절기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교회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과 능력을 주목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며, 그 은

혜 앞에 우리의 삶이 응답하여 성장하는 의도적인 하나님의 교육시간이다. 특히, 성탄절은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하는 대림절기(Advent)의 시간과 함께 참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참 소망과 빛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오실 소망의 주님을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위에 기억하고, 감사하여, 기대

하며 보내는 절기이다. 게다가, 교회력의 시작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로 인하여 한 해를 시작함을 기억할 때, 대림절과 성탄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절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확인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여정이 된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향한 핵심적인 신앙훈련과 교육의 시기중의 하나로 여겨지며, 시대에 따라서 소망중의 절제의 삶, 회개와 갱신적 삶, 감사와 기쁨의 삶 등이 강조되며 실천되어 왔다. 이렇듯 하나님 자녀들의 핵심적인 신앙성장의 절기로서 구별되어 준비하고, 참여하고, 축하되어왔던 4주간의 대림절기와 성탄절은 지금 한국교회 다음세대에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2. 동상이몽의 딜레마, 예수님과 산타크로스

대림절을 준비하며 많은 교회의 다음세대 예배실은 추수감사절로부터 성탄절기로 그 옷을 갈아입는다. 예수님의 오셨던 밤을 연상케 하는 큰 별과 목동들, 동방박사와 낙타들, 아기 예수님의 말구유와 천사들과 같은 많은 성탄의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상징물들이 그 공간들을 가득 채워 간다. 이 공간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 예배실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이야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을 고백하는 찬양, 그리고 소망의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된 기도문들에 참여하게 될 때,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고, 결단하고, 그렇게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

정을 경험하게 된다. 즉, 아이들은 대림절기의 시간과 공간안으로 들어오면서 아기 예수님 탄생의 큰 이야기(mega-story)안으로 초대되고,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를 경험하고, 우리 삶을 향한 성경적 소망과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를 시작했으나,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그들이 만나는 세상, 즉, 가정과 학교와 또래친구와 세상문화 속에서 예배시간을 통하여 들은 성탄에 대한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두 가지의 다른 이야기는 그들속에서 혼돈을 주게 된다. 특히, 일주일 168시간 중에 단 1시간만을 교회에서 보낸다고 생각할 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학교와 세상이 성탄에 대하여 아기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분의 오심이 진정한 소망됨을 주목하기보다, 내가 바라는 선물을 가져다주는 영웅으로의 산타크로스와 그를 통하여 받게 될 선물에 집중적으로 그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성탄절에 예수님과 산타크로스 중에서 과연 누가 주인공으로 다가올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 글은 “메리크리스마스인가? 해피홀리데이인가?”의 주제아래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글 중의 하나 이기에 필자는 산타크로스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목회적 연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세대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기독교교육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어린이에게 있어서 일상의 삶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의 현장이 된다.

다음세대의 신앙성장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적 문화를 자발적으로 택하기 까지 의도적이고 공동체적인 양육함이 필요하다.

3. 강력하고 의도적인 이중문화, 세상속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교육

어린이 영성학자이면서 기독교교육학자인 케런모리 유스트(Karen-Marie Yust)는 위와 같은 세속적 삶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양육을 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강력하고 의도적인 신앙적 이중문화를 제공하기를 제안한다. 유스트는 어린이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경험의 세상을 통하여 문화화 되어가는 존재이며, 특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형성과 성장의 장이 됨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자면, 어린이에게 있어서 일상의 삶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의 현장이 된다. 이렇듯,

삶의 현장과 경험이 강력한 교육의 기회요, 순간이 되기때, 유스트는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일반 세상문화는 단지 벽을 세워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도리어, 그들이 세속적인 세상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되, 세속적 세계관보다 더욱 의도적이고, 진실되며, 공동체적인 기독교적 문화를 함께 그들의 삶에 병존하여 강력하고도 의도적으로 제공할 때 아이들은 바로 거기에서 성서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여정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들이 매일 접하는 세속적 문화를 내려놓고 신앙적 문화를 자발적으로 택하기까지 의도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인격적인 신앙공동체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적 행위는 먼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실천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서의 대림절에 대하여 설명해주기, 예수님의 탄생이야기에 나온 상징들을 활용한 거실꾸미기, 소망의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친구들에 대한 기도와 봉사 등은 대림절기와 성탄절을 지나는 가정안에서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세상속에 살아가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보다 선명히 발견케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신앙적 가르침의 대표적인 실천현장으로 가정예배를 제안하고자 한다.

4. 가정예배, 이중문화의 삶을 사는 자녀의 심령에 복음문화를 세우는 자리

가정예배가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공동체적 의례라고 이해할 때, 가정예배의 자리아 말로 다음세대들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들어왔고, 익숙해왔던 가치, 우선순위, 삶의 목표, 삶의 방향등이 하나님의 말씀안에서 다시 점검받고, 확인받으며, 재해석되어지고, 재구성되어지는 강력한 기독교교육의 현장이 된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인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성 어거스틴, 종교개혁의 리더들이었던 마틴 루터, 존 칼빈, 청교도 시대의 찰스 헨리, 미국 대부흥주의 운동의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한국 선교 초기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로 섬겼던 곽안련 목사님의 문헌들을 통하여 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세속적인 세상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과 세계관안에서 세상에 끌려가기 보다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위대한 영적리더로 자라나는 핵심적인 신앙교육의 현장중의 하나는 바로 가정안에서 거룩한 의례를 구별하여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었다.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구별된 시간과 공간이 세워지는 곳이다. 세상의 이야기와 가치관이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중심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메가스토리와 세상의 이야기를 혼돈하게 흔들어 놓으며, 성경적 가치관을 도전하고, 기독교적 유산들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려고 할 때,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안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참여한 세상을 다시금

반추하고, 복음의 빛으로 재해석하고, 비로소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앞에 분별과 새로운 결단을 하게 인도해준다. 만일 대림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언약하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그래서 그들의 삶에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가득 채워 간다면, 산타크로스 와 선물들이 결코 그들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앉지는 못할 것이다.

5. 교회, 이제는 프로그램이 아닌 커리큘럼으로 신앙의 생태계를 세우라!

최근 북미 지역의 많은 교회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가정예배와 관련된 교회사적 문헌연구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학적이고 예전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오늘날 교회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티모시 폴 존스(Timothy Paul Jones), 제리 마르셀리노(Jerry Marcellino), 도널드 휘트니(Donald S. Whitney)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구비모델(Family equipping model)이론이다. 가정구비 이론의 핵심은 이제 부모세대가 협력하여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앙전수는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시도해온 이벤트 형태나 프로그램 형태로 제시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리어 그들의 부모를 자녀의 제자화과정의 가정교사로 세우며, 합당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길러주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주어서 이른바 교회와 가정이 다음세대 신앙양육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본 글에서 논하고 있는 대림절과 성탄절에 부모가 어떠한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자녀들은 비록 세상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세상의 가치와 성경적 가치, 세상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부딪혀도 세상속에 끌려가지 않고 성경적인 중심을 잡고 도리어 자신을 세상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자라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합당한 훈련과 자료를 제시해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교회안에서의 시간과 경험만으로 신앙형성과 신앙성숙을 보장할 수 없고, 교회에서의 예배와 성경공부가 교회밖에서의 삶속에 다시 반추되고, 도전되고, 삶을 변혁시키는 일상에서의 신앙교육이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믿음의 가정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부지런히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게 도우며, 부모세대와 다음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가정의 일상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구별된 시간과 공간이 가정예배를 세우기를 권면한다.

6. 나오는 말: 세상에 제자화되는 자녀, 이제는 세상을 제자화 시켜라!

요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세상으로부터 핸드폰, 영화, TV, 학교에서의 왜곡된 성문화와 폭력 문화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방식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제자화당하고 있다. 이러한 삶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경험하고 알게 된 부모세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일상의 삶에서부터 제자화시켜야 한다. 바로 그 믿

음과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세대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정체성과 비전의 은혜를 공급 하시며, 그렇게 구별되어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로소 세상을 복음으로 제자화시킬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글 | 신형섭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과정을 마치고, Union-PSCE 대학원에서 M.A.C.E.과정과 Union-PSCE 대학원에서 Th.M.을 수료하였다. 미국 Union Presbyterian Seminary 에서 Ph.D.를 마쳤다. 현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